

건축문화

2002년 2월호

이번 호에서
는 초기 근대
건축가 '아돌
프 로스
(Adolf
Loos)'에 대
한 특집이 마
련되었다. 장



식은 죄악이다.'라는 말로 너무나도 유명한 그를 현대의 상황에서 다시 읽어내어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줄 메시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다. 그의 대표작들의 사진과 도면, 그리고 모형에 의한 공간분석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로스와 현재의 건축적 담론들을 연관지어 논한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등의 에세이들로 꾸며졌다.

■ 특집: 아돌프 로스 再讀(Adolf Loos Again!)

▶아돌프 로스를 지금 이곳에 소환한다. 정체감이 뿌리깊게 자리나고 커다란 단절을 기다리게 되는 오늘날만큼 로스가 필요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근대건축의 시조중의 한 명인 로스의 가능성은 근대 건축 이후의 전개과정 중에서 소진되어 새로이 생성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 즉 근대건축은 시대의 제약에 의해 그 본질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우리들이 서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로스 건축에 있어서의 표층/장식, 나아가 라움 플랜이나 재료의 문제 등 건축의 쟁점들을 현대건축에 접속하는 이 작업은 '절단'에 관한 하나의 전망을 우리에게 던져줄 것이다.

▶이소자키 아라타와의 인터뷰: '지금이야말로 로스가 논해져야 할 때이다.' 이소자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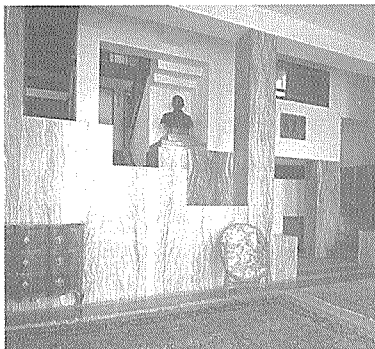
로 20세기의 전반은 아돌프 로스, 후반기는 임즈를 꼽았다. 흔히 말해지는 대표적인 거장들을 제쳐놓고 그가 이 두 사람을 꼽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기드온의 저서를 기반으로하여 정리되어온 근대건축의 역사는 20년대에는 말하자면 지극히 비주류라 할 수 있는 근대건축의 아방가르드들의 활동이 40년대에 그 패배를 맛보고, 2차대전후 헤게모니를 잡은 미국으로 망명하여 모더니즘을 부활시켜 주류를 이루게 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류가 된 근대건축에 비해 덜 화려하고 패셔너블 하지 만 좀더 깊은 차원에서 지반적(地盤的)인 변동을 준비하여 그것을 구체적인 표현의 차원, 혹은 사상적인 표현의 차원으로 표출한 인물들이 바로 로스와 임즈라는 것이다.

로스는 반(反)도시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카달로그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 건축을 완성한다는 임즈의 작업은 반건축적인 것이다. 건축과 도시를 긴밀한 관계로 엮어 생각하는 것은 바우하우스와 그 이전의 보자르의 사상에서도 보여지는 생각이다. 그러나 로스는 도시를 건축의 적으로 보았다. 이는 건축을 사회적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시켜 작업하려는 30년대의 근대건축의 흐름과는 달리, 로스는 건축을 문화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였고, 건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를 적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절된 내부를 구성하고, 이에 내부공간의 구성에 몰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어찌 보면 지극히 용기가 필요한 일로, 임즈의 반 건축적 발상이 역으로 20세기의 도시를 만든 것처럼 로스의 반도시적인, 절단(切斷)적인 발상이 20세기 건축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고 이소자키는 평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를 '지루하고 범용화한 근대건축의 원형'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며, 바우하우스나 꼬르뷔제가 근대건축의 미학을 테크놀러지를 사용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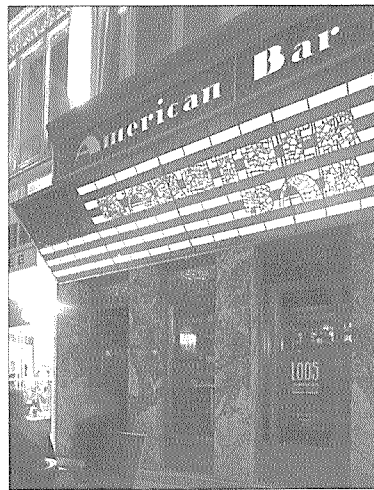
품생산과 연관지어 만들어 가려한 것은 오히려 세속적인 발상이며, 로스는 보다 개념적인 (장식의) 제거를 해냈다고 그는 보고 있다. '장식은 최악이다' 라는 그의 말도 '오더는 절대 안된다' 로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되며, 장식이 거짓으로 사용 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리움플랜은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과 어우러져 건축에서 신체의 문제와 촉감에 관한 감각을 불러일으켜 쟁점의 이론과 같이 시각중심으로 엮어진 건축의 이론들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어느 작가의 작품을 보아도 어디선가 본듯한, 진정 새로움을 주는 작품이 없는 요즘, 건축에 있어서 단절을 가져다준, 로스와 같은 발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소자키는 비추고 있다.

▶작품소개: 로스의 대표작들이 현장의 사진과 도면, 그리고 이해를 돕기위해 만들어진 모형의 사진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30)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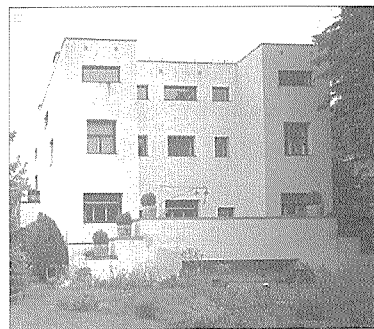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30)

그의 완숙한 리움플랜의 기법과 다양한 재질감의 표현, 단순한 외관 등 로스적 수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유리를 사용하여 좁은 공간에서 무한정한 공간의 느낌을 시도한 아메리칸 바(American Bar, 1907)에서는 미국국기를 변용하여 입면을 구성함으로써 다분히 팝아트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슈타이너 하우스(Steiner House, 1910)은 단순한 입면의 처리로 모더니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으며, 빈 시민을 도발한 무표정한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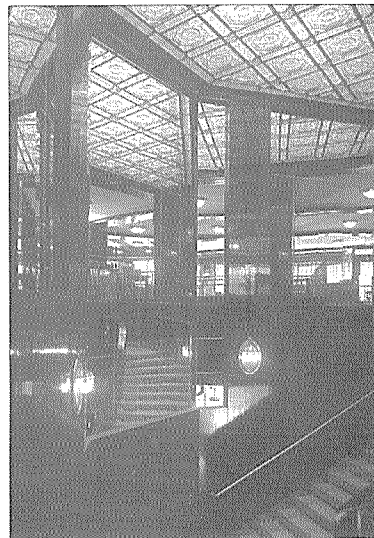


아메리칸 바(American Bar, 1907)



슈타이너 하우스(Steiner House, 1910)

으로 유명한 미카엘 광장의 로스 빌딩은 그의 주택작품에서처럼 단순한 입면과는 대조적으로 복합적인 내부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로스의 테라스형태의 건축 중 유일하게 실현된 쇼이 하우스(Scheu House, 1912)와 점포 디자인인 크니세 신사복점(Knize Clothing Store, 1913), 다다이스트인 트리스탄 짜라를 위한 짜라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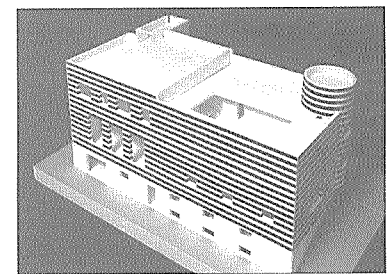
미카엘 광장의 로스 빌딩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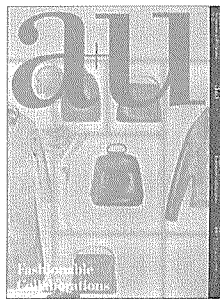
(Tzara House, 1926), 리움플랜의 초기 실현작인 루퍼 하우스(Rufer House, 1922), 시선의 드라마가 교차하는 고밀도의 공간을 보여주는 몰러 하우스(Moller House, 1928) 등이 소개되었고, 계획안으로는 시카고 트리뷴사 설계 경기 공모작, 조세핀 베이커 하우스(Josephine Baker House, 1927)가 모형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밖에도 오카자키 겐지로(岡崎乾二郎)를 포함한 4명의 좌담회 "로스"는 지금부터 점점 더 위협적이 되어가고 있다."와 코도우 타케시(後藤武)의 에세이 "동시성: 리움플랜에 대하여", 타나카 준(田中純)의 "파괴의 천사", 이시오카 료우지(石岡良治)의 "장식과 반복", 이시미츠 야스오(石光泰夫)의 "프로이트와 로스" 등 로스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수록되었으며, 로스가 주로 활동한 빈의 20세기 건축MAP도 함께 보여지고 있다.



조세핀 베이커 하우스(Josephine Baker House, 1927)

이번 호의 특집은 건축과 패션의 협동작업(Fashionable Collaborations)이다. 최근 세계의 대표적인 도시들에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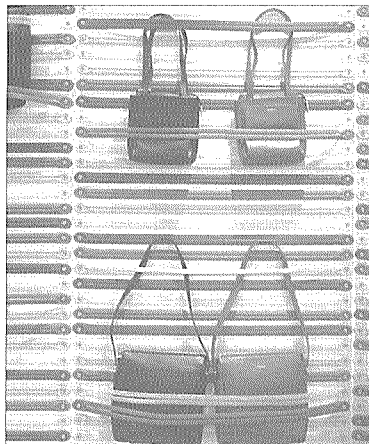


개되는 패션업계의 브랜드 샵은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이에 패션업계의 브랜드 샵은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게 되었다. 세계 주요도시에서 최근 만들어진 브랜드 샵들을 소개하고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테마들을 찾아보는 특집이다.

■ 특집: 건축과 패션의 협동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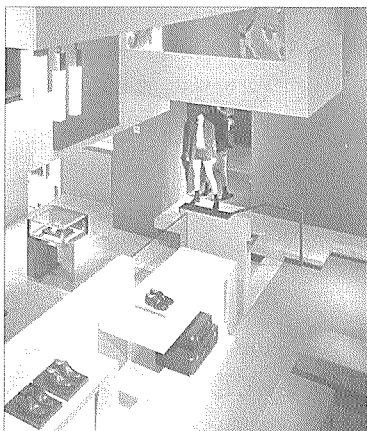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도쿄 등 자극적인 도시에 전개되는 브랜드 샵은 그 이미지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그치지 않고 각 브랜드들의 표현의 장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90년대의 브랜드 샵은 유니버설 디자인이 추구되어 세계의 어느 도시에 있어서도 동일한 컨셉의 샵을 전개하는 것으로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어필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 년 간에는 보다 개성화하는 도시 속에서 역으로 보다 창조적인 건축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가는 이 매력적인 클라이언트, 매력적인 빌딩 타입을 매력적인 도시에 설계하기 위해 어떠한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패션 브랜드는 지금 가장 자극적인 현대 아티스트로서, 브랜드 아티스트와 건축가, 그리고 도시와의 자극적인 협력(collaboration)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NL 아키텍츠가 맡은 파리의 만다리나 덕 본점(Mandarina Duck Flagship Store)에서는 끈으로 만들어진 커튼을



파리의 만다리나 덕 본점(Mandarina Duck Flagship Store)

사용해 탈의실과 샵의 공간 분할 등을 시도하고 다양한 색조의 고무로 이루어진 벽면, 그리고 쇼케이스의 터널 등이 구성되었다. 스튜디오 소필드(Studio Sofield)가 디자인한 구찌 뉴욕 본점(Gucci New York Flagship Store)은 백색과 프렌치 그레이톤을 주조색으로 하여 매끈한 도장으로 마감한 패널과 트래버틴, 섬유, 목재,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데 스틸적인 절제되면서도 다채로운 공간구성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하고 있다. 벽면에서 쇼케이스, 조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육면체의 통일된 조형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총체적 예술로서의 건축을 보여주어 데 스틸이 추구했던 바로 그 공간을 실현하고 있는 듯 하다. 글럭맨 메이너 아키텍츠(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뉴욕과 도쿄에



구찌 뉴욕 본점(Gucci New York Flagship Store)

마련된 헬무트 랭(Helmut Lang) 부터 크는 절제된 모더니즘적 실내공간과 함께 전광판을 기둥과 계단의 난간 등에 사용함으로써 현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헤르조그 & 드 뮐롱(Herzog & de Meuron)에 의해 디자인된 도쿄, 피렌체, 뉴욕, 알레쾰의 프라다(Prada)샵은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



도쿄의 샵

으킬 만 하다. 도쿄의 샵은 그물과 같은 외벽에 렌즈와 같은 유리창들이 끼워져 건물 전체의 모습을 형성하고, 피렌체, 알레쾰에 세워질 건물도 형태는 다르나 독특한 형태의 외벽이 건물 전체를 감싸면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굽이치는 바닥면을 내부공간에 도입한 OMA의 렘 콜하스의 프라다 샵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도 있으나 프라다는 모든 샵에서 가장 과감한 디자인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있다. 이밖에도 존 파슨(John Pawson)이 디자인한 도쿄와 서울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샵과 일본의 세 지역(오모테산도, 긴자, 나고야)에 세워진 아오키 준(青木淳)의 루이 뷔통



렘 콜하스의 프라다 샵

(Louis Vuitton)샵, 피터 마리노(Peter Marino)의 샤넬(Chanel) 오오사카 샵,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레나 듀마(Rena Dumas; 인테리어 담당)의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ès) 등이 소개되었다. (번역/강상훈)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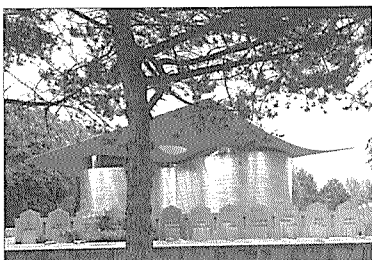
2001년 11월호

지역주의 건축에 대해 새로 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근작을 소개하고 있는 이번 호는 아울러 이러한 건축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ga Kahn Awards의 2001년도 결과를 보고한다.



■ 지역주의의 새로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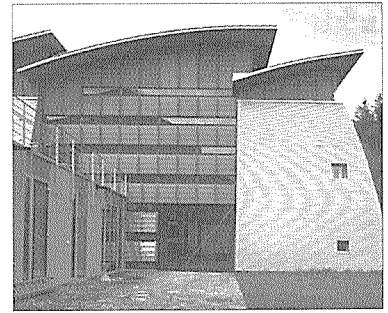
최근의 정치적 이슈들이 지역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는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화는 평균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각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였다. 지역주의 건축은 토착 건축양식의 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의 자연과 기후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현대의 기술을 가지고 각 지역성에 부합하는 건축을 이뤄내는 것이 요구된다.



Mecanoo의 로테르담 Chapel

▶ Mecanoo의 로테르담 Chapel
로테르담의 St Lawrence 천주교 묘지의 역사는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H. J. van der Brink가 설계했던 네오고딕 양식의 교회는 전쟁에 의해 소실되어 1963년 동판으로 덮인 원추형 형태의 근대 건축물로 다시 지어졌다. 하지만 이도 노후하여 새로운 교회의 신축이 요구되었다. Mecanoo의 Francine Houben은 보석 상자 같은 건물을 250년 된 석조 기초 위에 올려놓았다. 이 건물을 의뢰받기 전에 Houben은 베니스의 15세기경에 지어진 바로크양식의 교회와 성당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그 형태가 당시의 유골함과 매우 닮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이 교회의 디자인 전개에 중요개념이 되었다. 금색의 물결치는 지붕은 바로크적 감각을 표현한다. 그러나 내부공간은 정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발산한다.

▶ Sz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St Ulrich im Greich 문화센터
St Ulrich im Greich는 와인을 생산하는 마을로 매우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각종 페스티벌과 공연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문화회관으로서 마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서부 불력에 지어졌다. 언덕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마을 중심의 서쪽 단부의 중요한 이정표를 이룬다. 다소 조용하고 일상적인 마을에 대담한 형태의 이 건물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적조의 파일론은 네모서리에서 대지에 경사와 반대로 솟은 세 개의 곡면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파일론은 이 지역 특유의 생산품인 백색타일로 마감되었으며 중앙의 적색 판재는 이 지역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자연재이다. Szyszkowitz-Kowalski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축조방식의 시각적 곁침은 그 깊이와 재질감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주 트러스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표현은 구조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외부에서 건물의 주요 지지체로



Szyszkowitz-Kowalski의 오스트리아 St Ulrich im Greich 문화센터

인식되는 네 모서리의 파일론은 실제 내부에서는 매시브한 고체라기보다는 실을 형성하는 벽으로 보여진다.

이외에 ▶ MBM Architect의 바르셀로나 Pompeu Fabra 법과대학, ▶ Judith Hilton, Nina Cohe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박물관, ▶ Woodhead International의 호주 Karijini 관광안내소 등이 소개되었다.

■ Aga Kahn Award 2001

지난 1977년 설립되어 이슬람 세계의 건축물들에 주어지는 제9회 Aga Kahn Award의 결과는 예상 외로 실망스러웠다. 1983년 수상작이던 Sherefudin의 유고슬라비아 Visoko 백색 모스크가 보여줬던 작품성 있는 경우가 드물었고, 중동에서 터키,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지어지기 시작한 상업 건축물에 대한 주목도 빠져 있다.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 원칙 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역사를 독특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들 건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어온 Aga Kahn Award의 시상 기준을 분석하면서 올해의 수상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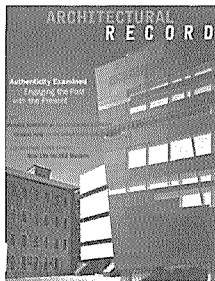
■ 기타

▶ Aga Kahn Chairman's Award를 받은 스리랑카의 건축가 Geoffrey Bawa와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그의 작품 세계, ▶ Foster and Partners의 영국 런던 Aldwych 대학 건물 인테리어, ▶ Ushida Findlay의 영국 수영장 등을 소개하고 있다.

Architecture Record

2001년 11월호

이번 호는 과거의 건축 유산과 현대 건축간의 관계를 묻는 글들이 특집으로 실렸다. 근대 건축 유산의 리노베이션과 보존 문제 등을 건축사적, 기술적으로 조명하였다.



■ 의사 경험 중심 사회에서의 실재와 진위성

Louis Kahn이나 Carlo Scarpa의 근대 초기 건축물들은 우리에게 현실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것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설득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이러한 실재성과 진위성이 이제 가상의 현실과 경험을 만들어내길 원하는 경제 논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레스토랑들은 음식의 맛보다는 분위기나 서비스의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웨이터들은 배우가 되길 강요받는다. 공조시스템이 잘된 쇼핑센터는 로마의 변화가가 되며, 거대규모의 교외 서점들은 과거의 상류주택 서재로 바뀌었다. 궁전에서 영화를 보며, 어린이 병원은 회복을 위한 여행의 출발지가 되었다. 즉 모든 장소, 사물, 서비스, 이벤트들은 테마화되고 끝없는 카니발의 일부가 되고 있다. 건축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쉽게 동화된 이유는 건축도 영화, 연극, 음악과 같이 쉽게 경험을 생산해내는 다른 문화와 경쟁하기 위해서이다. 건축은 자연과 문화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실재와 비실재의 양면성을 지닌다. 건축의 실재적인 문제는 기술적 물리적 요구의 측면에서 발현되어 왔다.

■ 보존주의자들의 족쇄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의 Rem Koolhaas의 Prada Shop 분쟁은 지금 건축계의 핫이슈가 되었다. 진보주의자와 장식주의자 모두의 온상인 이 도시가 과연 미래지향적인 이 건물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잘 보존된 과거의 그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지난해 봄 캠브리지에서 있었던 매우 유사한 분쟁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문화재 위원회는 한스 홀라인의 하버드 스퀘어 사무동 계획을 반려하였다. 많은 건축가들은 무미건조한 미국의 도시환경의 책임은 보존주의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보존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법은 과거를 성역화하는 것이지 역사의 본질인 변화를 억압하는 장치이다.

■ 과거와 현재간의 대화

다음 소개하는 작품들은 과거와 현재의 대담한 병치를 의도한다. 기존의 구조물을 재사용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가들은 단순히 반복하거나 재해석하기보다는 이전 건축물에 대한 경의를 취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 Coop Himmelb(l)au의 비엔나 가스탱크 B 프로젝트

1896년 가스탱크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조각조의 실린더 건물에 새로 주거 기능을 삽입시킨 이 작품은 옛 건물



Coop Himmelb(l)au의 비엔나 가스탱크 B 프로젝트

의 육중함과 대조적인 유리벽 매스를 더하기도 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로, 나머지 3개의 실린더는 Jean Nouvel, Manfred Wehdorn, Wilhelm Holzbauer에 의해 재개발된다.

그 외에 ▶ Saucier+Perrotte의 캐나다 퀘벡 Collège G. Raymond-Godin, ▶ Wilkinson Eyre의 영국 Magna Project, ▶ Dan Hanganu, Provencher Roy의 캐나다 몬트리올 Centre d'Archives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리노베이션

21세기를 맞아 지난 세기의 건축물도 이제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옛 건물들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그 용도를 개선해간 사례들을 소개한다.

▶ 미국 뉴욕 Coming의 Row 연구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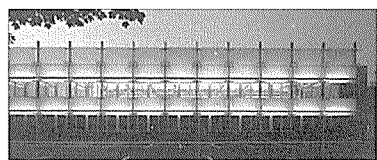
1960년대에 지어진 평범한 박스 형의 사무실 건물이 Bohlin Cywinski Jackson에 의해 새로운 도서관 건물로 재개발되었다.

▶ 미국 텍사스 Fort Worth의 Amon Carter 미술관은 지난 1961년 Philip Johnson이 설계했던 것으로, 리노베이션 역시 Philip Johnson/Alan Ritchie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외에 ▶ John Hejduk이 1973년 설계했던 네덜란드 그로닝엔의 율하우스, ▶ John Lautner의 1950년대 할리우드 저택 리노베이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특별 리포트로 911 테러 이후 뉴욕의 복구 상황, ▶ 테러 지역 재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세월에 의해 마모된 역사적 외관 보수법 등을 다루고 있다. (번역/최원준)



Row 연구 도서관